

아버지학교 수료자와 비수료자의 생성감(Generativity)과 생활 만족도 모형 비교 연구

전 미 애(충신대학교 교수) · 전 혜 정(연세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중·장년 남성들의 ‘아버지학교’에의 참여가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남성과 수료하지 않은 남성 집단의 생성감 관련 요인들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생성감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생성감과 생활 만족도 모형을 적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대상은 총 279명의 중·장년층 남성으로, 이들 중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응답자는 159명이고 아버지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PC통계 프로그램과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상관분석, 경로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학교 수료 집단과 비수료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부관계,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연령, 학력, 월 평균 수입, 취업상황, 가족형태 등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아버지학교 수료집단의 평균점수가 약간 높게 조사되어 아버지학교 수료집단이 비수료 집단에 비해 부부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성감과 생활만족도도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집단이 비수료 집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학교 수료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부부관계, 자원봉사, 생활만족도이며 특히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는 자녀와의 관계, 비공식적 지원, 자원봉사, 생성감, 생활 만족도와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자원봉사와 관련이 있는 변수는 아버지학교 수료 외에도 학력, 월 평균 수입, 부부관계로 나타났다. 생성감은 학력, 월 평균 수입, 부부관계,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생활 만족도는 아버지학교 수료 외에 학력, 월 평균 수입, 부부관계, 자녀관계, 비공식적 지원, 자원봉사, 생성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아버지학교 수료집단과 비수료 집단 사이에 생성감과 생활만족도 모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학교 비수료 집단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연령의 증가가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학교 비수료 집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생성감이 수준이 높은 반면,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집단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성감과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고, 비공식적 지원제공을 많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학교 비수료 집단은 학력과 비공식적 지원만이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아버지학교 수료집단에서는 학력과 비공식적 지원 외에도 월평균 수입과 아버지와 자녀관계가 생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공식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성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학교 교육은 중·장년기의 남성의 생성감과 생활만족도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남성들과 아버지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남성들의 생성감과 생활만족도 모형에 관한 연구는 늘어난 기대여명에 따라 인간발달 이론을 재정립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길어진 중·장년기를 대비해야 하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사회교육으로서의 실천적 방안을 개발해 나가는데도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